

# Story of Michelle

Sapporo Int'l Buldg, 26-1 Kita 4 Jo Nishi 11Chome, Chuoku Sapporo, Hokkaido 060-0004 Japan  
Tel: 81-11-221-8851/ Cell: 81-80-3293-6775 [michyus@hotmail.com](mailto:michyus@hotmail.com)  
December 2017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전5:16-18 새번역)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나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스스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양 받기 합당한 분이시며 찬양의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8차의 항암치료 중 두번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힘든 시간들 이었습니다. 암이 발견된 후로 지금까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 받고 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축복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들 입니다. 아직도 많이 힘듭니다. 육체의 고통에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고통을 견디게 하신다는 확신의 시간으로 변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는 지난 11월에 창립 33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과도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국제교회를 많은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국제교회가 계속 쓰임 받기 위해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 몇 달간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7월에는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언어예배의 교인들이 하나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경험한 수련회였습니다. 8월에는 한국 부산에서 단기팀이 방문하였습니다. 요리강좌와 푸드패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그 중에는 교회에 들어오셔서 교제를 나누고 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10월에는

미국 LA에서 색스폰팀이 방문하고 가을 콘서트를 개최해 주셨습니다. 70명 정도가 참석하였습니다. 간증과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방문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명의 일본인 자매가 10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인내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능하였습니다. 11월에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결혼까지 이르게 된 커플입니다. 국제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 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순간 이었습니다. 이제 12월이 되어 크리스마스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이 힘든 시간을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 많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을 저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가끔은 감정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월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버지와의 완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 죄악의 세상에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시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고통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헤아릴 수 없는 수 많은 축복이 지난 일년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완전한 축복으로 임하길 기도합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Michelle Lee from Sapporo, Japan

# Story of Michelle

Sapporo Int'l Buldg, 26-1 Kita 4 Jo Nishi 11Chome, Chuoku Sapporo, Hokkaido 060-0004 Japan  
Tel: 81-11-221-8851/ Cell: 81-80-3293-6775 [michyus@hotmail.com](mailto:michyus@hotmail.com)  
December 2017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1Thess 5:16-18, ESV)

These are very well known verses. I have to confess that I misunderstood these verses for a long time. I have been thinking that I am the one who needs to rejoice, pray and give thanks. But I realized that I can't rejoice by myself if the Lord doesn't allow us. The Lord is the one who makes us rejoice always. The Lord is the means of praying without ceasing. The Lord is the one who causes us to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God is the one who blesses through giving us joy, making us pray without ceasing and giving thanks in all circumstances. He is the reason and the one who is worthy to be praised.

I am now on the 2<sup>nd</sup> cycle of chemotherapy and I have 6 cycles more to go. It has been and it is still a tough period of time. Ever since I found out the cancer in my body, it has been tough all the way upto today. However, it has been a very blessed moment as well. I learned to be humble and kneel down before the Lord. I learned how I am loved by Him through many brothers and sisters around the world. I learned how to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It is such a blessing and joyful moment of my life. It is still tough and sometimes I cry to bear the physical suffering, but it turns into the convicted moment that the Lord is with me to bear this time together. Our Lord is so faithful and gracious. Praise the Lord!

SIC just celebrate 33<sup>rd</sup> anniversary on last November. We praise the Lord for the 33 years of walk. Even though SIC is at the transition point after the first new Japanese pastor, we all sensed that God is making us one as a family over the all the differences of languages, cultures and etc. We believe that God would continue to guide and bless us to expand His kingdom.



There are many special events during last couple of months. There was a SIC family camp in July. All the congregations of different languages gather together as a family to praise and worship the Lord together. God blessed us in a very special way. A short term team came from Busan, Korea in August. Korean cooking class and Food Fair presented by this team. Many people stopped by and some are actually stepped in and had fellowship together. Another short term team came from Los Angeles in October. This team is a saxophone team and presented Autumn Concert. About 70 people came and enjoyed the concert. Testimonies and fellowship were shared. Please pray with us that the new people would keep visit and experience the love of Christ.

Two Japanese ladies were baptized in October. They took pretty length of times until they actually decided to be baptized. Praise the Lord for His patience. One young couple got married in November. These young people met at college and shared their faith together. Both of them are serving the Lord at SIC very faithfully. It was such a blessed moment for all of us as a family. Now, December is here and we are preparing for Christmas in prayer. Pray with us that more people would have a privilege to hear the gospel of Christ, understand His love and accept Him as their personal Savior.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ayer and support in this crucial moment. I received countless encouragements. I don't know how to express my overwhelming heart to you. It has been four months since I was diagnosed with cancer. It was a shock in the beginning that I couldn't even breath. But the Lord is there and giving me peace to walk forward. And the Lord brought each one of you to me to walk forward together.

As I experience physical pain and sometimes emotional pain, I learned that the pain in Christ is the process of completion of restoration the relationship with Father. The process is painful, but the result is joy of God's grace. God's grace is there in the midst of pain. I think December is perfect time to reflect the Father's grace for us thru Jesus Christ. Christ is the one who went through the pain on the cross to restore the complete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for us. His suffering is complete grace for us. Let us remember His obedient suffering to be born in this sinful world in a human form to deliver us from death to eternal life.

I am sure you also have countless blessing throughout this year. I hope you have enough time to reflect and evaluate this year with the Lord. May God bless you and may the love Christ bring you the complete grace.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Michelle Lee from Sapporo, Japan